

## 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8월 30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2012년 5월 24일의 대법원 판결로 일본의 역사적 책임 문제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과 관련 협정에 의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관련 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47년이 됩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하는 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보며,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역사적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일청구권교섭의 기초가 된 대일평화조약 제 4 조는 분리지역의 재산처리에 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이 대상이며,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한 책임이나 배상을 결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한일청구권교섭이라 해도 일본측은 당초, 재조선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지만, 동조 b 항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한국측이 청구한 개인청구권도 미불금, 공탁금,

근무 중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금 등이었습니다.

애초에 한일기본조약과 관련 협정에서는 ‘중일공동성명’이나 ‘조일평양선언’에서 보이는 역사인식이 결여되고 있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한 것을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문장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재판이나 국회 답변 등에서 일본정부는 개인의 권리소멸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해왔습니다.

## (2) 조선인 피해자는 지금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서는 재산처리에 관한 보상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기의 조치는 재산 보상과 사망자에게 대한 위로금에 한정된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과거 청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 피해자에게 일정한 추가적 보상금이 지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금이며, 일본측이 변상해야 할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의 전 군인·군속 출신에게는 일시금 지급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아시아 여성기금’ 설립 등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정부는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이어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청구권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하여 ‘무라야마 담화’에 걸 맞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수정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기초하여 조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솔선해서 조선인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피해자의 인권회복은 일본정부가 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조선인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일본정부는 조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권리상황을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평화의 실현에 기여해야 합니다.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국헌법 전문에는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정신에 입각하여,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망합니다.